

漁港관리, 어민·政府 모두가 깊은關心을

金 鍾 尹 (南海郡水協 組合長)



돌이켜 보면 1989년은 우리 수협에 있어서 그 어느 해 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변혁이 많았다.

연초 조합장 직선 으로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는 종래 다소 관료적이고 타성에 젖은 어민 봉사 단체 수협의 위상을 재 정립 해야 했고, 침체에 빠진 어민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진정한 어민의 수협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항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적었던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88년 어항관리 우수 수협으로 표창을 받은 우리 남해군 수협의 어항관리 사례(미조항)를 통하여, 어항에 대

한 전국 어민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아가 1990년대 에는 우리의 재산, 나라의 재산인 어항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미조항(彌助港)은 남해군 수협이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수산청 제3종 어항이다. 미조항은 남해도 최남단인 삼천포와 여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의 근거지로서, 혹은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이 옛날부터 강조되어 왔다.

1971년 제 3 종 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미조항은 어항 시설 계획에 따라 꾸준히 개발 사업을 전개해 마침내 1985년에 주요 어항 시설을 완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조항은 인근 어장의

수산 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성 어기엔 많은 어선이 집결하고 있는데, 그동안 불편했던 어항 기반 시설을 완공 함으로써 이제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신속한 어획물의 양륙 처리로 남해안 에서 보기 드문 우수한 어항의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남해 미조항 인근 어장에서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장어, 멸치, 삼치 정도. 이 가운데 장어의 어획이 가장 많은 편인데, 이에 따라 어선 세력도 연안 장어 통발 어선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미조항을 이용하는 어선의 가장 큰 특징 이라면 아무래도 5톤 이하의 소형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소형 어선의 집결은 필연 적으로 해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색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우리 남해군 수협 어항 관리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부터 출발 했다.

앞서 밝혔듯이 남해군 수협은 지난해 어항 관리 우수 수협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수협이 어항 관리를 잘 하지 못 하면 이러한 수 많은 소형 어선들이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곤란에 처할 상황적 근거가 어항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되었음을 부인 할수 없다.

반대로 이렇게 철저히 어항 관리를 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 하다 보니 많은 어선이 몰려든 것 또한 사실 이겠지만,

어항무관심에 아연

현재 어항 관리에 대해서 어항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제 6조에서 제1종 및 제3종 어항은 수산청 장이, 제2종 어항은 도지사가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어항 소식지를 읽어보고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항 협회가 실시한 어항 이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어항의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45.9%가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로 응답 했고, 모르 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무려 17%나 되었다. 바른답에 해당하는 협 조합장 이라는 응답은 단지 23.7%에 불과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지 아니 할수 없었다.

이것은 물론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 하고 있을 것이다. 어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생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수산관계 당국이나 수협의 어민에 대한 홍보 부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남해군 수협은 3,500명에 가까운 조합원과 그 밖에 외래 어선이 활발히 이용 하는 미조항에 대해서 이같이 우려할 만한 어민의 무관심을 깨우쳐 제고하는 지극히 사소한 일 부터 어항 관리의 실마리를 풀

어 나갔다. 우선 매주 2회 이상 캠프 방송을 통해 미조항을 이용하는 어민과 내방객들 에게 왜 어항을 우리 모두의 재산 같이 아끼며 깨끗이 사용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 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용 어민들이 얼마나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항에 대해서 새삼 스텝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것 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같은 다소 추상적인 사업은 그때만 지나면 금방 잊혀 지거나 관심이 멀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금쯤 강제가 따를 지라도 어항 관리에 어민들을 참여 시키는 행동적인 측면이 필요 했다.

이래서 시작한 것이 항내 정화 운동이 었다. 매주 수요일 어민과 조합직원, 그 밖의 이용자 들이 직접 참여하여 각종 오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어항을 만들자는 캠페인 이었다.

사실 이런 행사는 전 시행정의 표본이란 비난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용하는 어항 내에 오물을 버릴 경우 결국 그보다 몇배나 더 힘든 작업을 통해야 만이 이를 깨끗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장점은 충분히 있었다.

다음으로 실시한 것은 항내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임의 부실물 철거작업 이었다.

그동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항내를 오염 시키는 원인이 이를 이용하

는 어민들 예게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무단 점유자와 임의 부설물에서 마구 버리는 오물이 큰 문제였다.

어항 관리나 이용에 대한 별다른 관심이 있을리 만무한 이들을 설득하고, 임의 부설물 3건을 철거하는 데는 많은 애를 먹기도 했지만 깨끗한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후 부터는 이미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이 시작된 뒤엔 이의 철수·철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을 깨닫고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비교적 외곽 어선이 빈번한 출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이 어항을 잘 이용하고 싶어도 어항 내의 현황을 몰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여 어항 안내판을 다시 정비하고, 곳곳에 이용 방법을 게시함으로써 불편을 덜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어항 시설 관리부를 매일 매일 기록 하도록 하여 항내의 크고 작은 일을 정리해둠으로써 어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항상 일목 요연하게 처리 할수 있게 했고, 어항 도면을 통하여 이를 수시로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어항에 대한 가장 기초적 이고 상식적인 내용의 관리에 불과했다. 실제로 어항의 이용 목적이 나 기능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항은 각종 수산물이 집하되고, 어선이 필요로 하는 물

자, 장비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어선의 대피와 정박으로 어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도록 하는 것이 어항의 진정한 이용 목적인 것이다.

특히 어민들의 궁극적 목표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애써 어획해온 수산물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경비를 절감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어민들이 출어에서부터 귀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어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이 모든 절차가 편리하고, 적절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했다.

‘수협에서 관리’ 마땅

물론 개중에는 부실하게 어항을 관리하는 조합도 없지는 않겠지만 수산업과 어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빈번한 접촉을 하는 곳이 수협 이라면 이는 마땅히 수협에서 관리 대행을 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다만 일단 관리 대행을 맡겠으니 ‘내 몰라라’ 하는 정책 당국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이 최선을 다해 어항을 관리 할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1990년도 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예컨대 어항 유지·보수비에 대한 신축적인 운용 이라든지,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 등은 자칫 감히, 혹은 모두 손대기 싫은 어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근본적 으로는 어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과 울리, 관리 대행자인 수협에 더욱 많은 재량권을 확보토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1990년대의 어항은 지금과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많은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그저 종래 어선의 대피·정박항 정도가 아닌 어항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 되어 어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즐겨 찾는 그런 곳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을 고려 한다면 어항의 주 이요자인 어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항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앞장서야 할것 같다. 특히 어항 시설의 이용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 하지 말고 내 생업의 터전이란 인식을 갖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정책 당국도 일본이나 여러 수산 선진국이 현황을 직시하고, 근본적으로 어항 행정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 이야말로 수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엔 우리나라 어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